

## 유럽의 물류중심국가 네덜란드의 교훈

- 프랑스, 독일, 영국 등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유럽의 물류중심국가로 우뚝선 ‘작지만 강한 나라(強小國)’ 네덜란드의 성공사례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음
  - 네덜란드인들은 척박한 국토여건을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극복하였을 뿐 아니라, 자유와 관용을 존중하는 개방정신으로 유럽대륙의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할 수 있었음
  - 네덜란드의 성공에는 높은 경쟁력을 갖춘 로테르담항과 스키폴공항이 있었듯이, 인천국제공항과 부산, 광양항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
  -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개방적인 사회분위기와 국민들의 외국어능력이 중요하며, 유연한 고용시장, 외국인투자유치 관련제도의 정비,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의 구축 등이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임
- 특히, 네덜란드가 1980년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보여주었듯이, 정부와 국민, 기업과 노동조합간의 폭넓은 합의와 참여를 통해서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

## 네덜란드 개요

- 네덜란드(低地라는 뜻)는 라인강하구 삼각주지역에 자리잡고 있어 예로부터 강물과 북해의 바닷물에 시달려왔으며, 이에 대응하여 네덜란드 국민들은 제방을 쌓고 배수로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국토를 확장시켜 왔음
- 해상과 하천교통의 요충지에 자리잡은 네덜란드는 중세말부터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, 17세기 들어서서 국제중계무역시장인 암스테르담항의 번영으로 유럽 제일의 해운, 무역국가로 부상하였음
  - 16세기 후반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하여 네덜란드 연방공화국을 건설한 네덜란드인들은 해상중계업의 번영을 위해 자유와 관용을 존중하고 이 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 상인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왔음
- 20세기에 들어서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시 네덜란드는 영국, 독일, 프랑스 3대 강국세력 사이에 끼인 약소국가로서 엄정 중립유지에 힘썼으나, 전쟁은 이 나라에 많은 인적, 물적인 손해와 국토의 황폐를 가져왔음
-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, 1980년대 들어 재정적자와 노사분규로 심각한 경제위기에 당면하였음. 조그마한 국토에 별다른 제조업도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, 네덜란드인들은 국토의 입지적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물류산업의 육성과 외국기업의 유치로 경제적인 활로를 모색하였음

네덜란드와 한국의 비교 (2002)

구 분	네덜란드(A)	한국(B)	A/B
면적 (km <sup>2</sup> )	41,526	99,434	0.42
인구(천명)	15,900	47,640	0.33
인구밀도 (명/km <sup>2</sup> )	472	328	1.43
GDP (US \$)	3,576	4,574	0.78
1인당 GDP (US \$)	23,987	9,628	2.49

## 유럽의 관문 로테르담항, 스키폴공항

- 3억 9천만명 유럽시장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로테르담항은 유럽의 해상관문으로서 광대한 배후시장을 확보하고 있음
  - 연간 5백만개의 컨테이너와 3억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 있으며, 이는 유럽 내 다른 모든 항구의 처리능력을 합한 것보다 많음
  - 유럽에 물류센터를 갖고 있는 611개 미국기업 중 57%, 344개 아시아기업 중 56%가 로테르담지역에 위치하고 있음
- 로테르담항의 높은 경쟁력은 단순한 부두가 아닌 「두뇌항구」의 개념에서 복합적인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음
  - 광활한 배후물류단지에서는 단순배송뿐 아니라 제품조립, 가공 등 부가가치물류 (VAL: Value Added Logistics)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
- 스키폴공항은 로테르담항에서 6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시설을 확충하고 있음
  - 스키폴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암스테르담 시내는 물론 네덜란드와 유럽의 주요 도시까지 철도로 바로 연결됨

## 네덜란드의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

- 네덜란드는 로테르담항과 스키폴공항을 중심으로 유럽대륙의 각 지역과 거미줄처럼 연결되는 효율적인 복합운송체계를 갖추고 있음
  - 라인강운하를 통하여 8개국 26개 항구와 직접연결이 가능함
  - 로테르담항이나 스키폴공항에 도착한 화물은 철도를 통하여 유럽은 물론 중동과 태평양 연안국가까지도 운송이 가능함
  - 로테르담항에서 고속도로로 영국, 스칸디나비아반도, 이탈리아까지 바로 연결됨
  - 로테르담 항만지역에만 총 연장 1,200km의 송유관이 구축되어 벨기에와 독일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음

## 네덜란드의 소프트 인프라

- 네덜란드는 1980년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가 개방정책과 기업 친화정책의 추진을 위해 외자유치청(NFLIA: Netherlands Foreign Investment Agency)을 중심으로 외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전략을 펼쳤음
  - 휴렛패커드, 보잉, 나이키, 지멘스, 듀폰, 르노, 후지쓰, 캐논 등 전 세계 6천7백여개 기업의 물류센터와 지역본부를 유치하였으며, 고용효과만 40만명에 달함
  - 네덜란드의 기간산업인 물류업무의 운영도 단자스(독일), UPS(미국), 니폰(일본) 등 외국계 회사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
- 네덜란드의 투명하고 까다롭지 않은 관세제도와 공무원의 세일즈맨적인 자세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음
  - 네덜란드 법률의 표준화,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, 각 부문 혁신에 대한 정부지원 등이 강력하게 이루어졌음
  - 네덜란드에서는 세무서가 일종의 서비스센터 역할을 하고 있으며, 관련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기업마인드가 외국기업들에게 매력도를 높임
- 네덜란드의 융통성 있는 노동시장과 네덜란드인의 뛰어난 외국어 구사능력은 외국기업 유치경쟁력을 크게 제고시킴
  - 1983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임금인상은 억제하기로 합의 하였을 뿐 아니라, 임시근로제를 시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유연성 높은 노동시장을 가지고 있음
  - 네덜란드인들은 개방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, 전체 노동인구의 20% 이상이 외국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음
  - 전체 네덜란드인 중 73%가 자국어 외에 1개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하고, 2개 이상, 3개 이상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도 44%와 12%로 외국어 구사능력이 뛰어나

국토연구원 진영환 선임연구위원(yhjin@krihs.re.kr)